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상,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

- 복지부,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8.)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역 쪽방상담소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8일(금)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5.~'26.,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였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한다. 동 대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필품(2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과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다자녀 기초수급 가구)하는 등 저소득층 강화 방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건강관리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쪽방촌 지원 상황과 쪽방 주민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 주민 수요를 고려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온기 창고*’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스토어

이날 쪽방상담소에는 서울특별시청·용산구청·경찰·소방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5~'26)」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겨울철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복지부-지자체-현장 기관 각각의 역할과 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은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

***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 지자체 심층상담·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쉽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의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6.7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8.1만 명)

연말연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취약대상을 집중 발굴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할 계획이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의 안내 사업 종류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한다.

2.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 어르신, 노숙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심돌봄 앱’을 통해 활동량 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장애인 등 가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폭설·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 부재하게 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폭설·한파에 대비하여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침낭·햇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지자체-노숙인 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주야간 주기적 순찰을 통해 안부확인을 하는 등 현장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일상돌봄) '25. 215개 시군구 → '26. 220개 이상 시군구
(긴급돌봄) '25. 137개 시군구 → '26. 142개 이상 시군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 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25.12월~'26.2월)’을 지정·운영한다. 취약 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난방용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3.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가구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고,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뿔감도 지원한다.

* (전기) 월 최대 1.6만 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월 최대 14.8만 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중증질환자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2개월('26.1월~2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응급실(약 500개)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전국 보건소(262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를 통한 건강관리*를 시행한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한다. '26년 노인일자리 5.4만 개, 장애인일자리 2.3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근로 지원을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이사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 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 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 노인·장애인 일자리는 흑한기에 단축 운영·유연 근무 등 탄력적 운영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어 적용한다.(5→2%)

*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6나눔캠페인’(‘25.12~’26.1)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또,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25.12.~’26.1.)을 운영하여 김장김치 나눔, 한파 대비 용품·연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푸드마켓·동주민센터·복지관 등에 코너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2차 이용 시부터는 의무적으로 상담받아야 하며 필요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추진방향
 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요약)
 3. '25년~'26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포스터
 4. 서울역 쪽방상담소 등 현장방문 개요

담당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현주 (044-202-3020)
		담당자	사무관	진수현 (044-202-3009)
담당부서 (교육급여)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044-203-6529)
담당부서 (자원봉사 운영)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책임자	과 장	홍정우 (044-205-3171)
		담당자	사무관	심규동 (044-205-3173)
담당부서 (국가유공자지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2-5610)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5620)

담당부서 (도시가스)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한주현	(044-203-5180)
		담당자	사무관	박광일	(044-203-5232)
담당부서 (에너지바우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044-201-6962)
		담당자	사무관	경선희	(044-201-6969)
담당부서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박수연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박미진	(044-202-7485)
담당부서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4504)
		담당자	사무관	황보경	(044-201-4740)
담당부서 (주거급여)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김진희	(044-201-3358)
		담당자	사무관	서민지	(044-201-4531)
담당부서 (햇살론유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임재원	(02-2100-1688)
담당부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전은주	(02-2100-1652)
		담당자	사무관	강우정	(02-2100-1655)
담당부서 (떨감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책임자	과 장	하지수	(042-481-4180)
		담당자	사무관	박세은	(042-481-4218)
담당부서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하 진	(043-719-8350)
		담당자	사무관	이우건	(043-719-8365)
담당부서 (응급실 감시체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50)
		담당자	사무관	안대식	(043-219-2951)

붙임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 지원 대책 추진방향

목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기본
방향**

- ◆ [촉촉한 위기 발굴] 선제적 발굴 · 안내를 통해 위기 악화 예방
- ◆ [두터운 민생 지원] 대상별 ·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따뜻한 연대 강화] 민간의 인적 · 물적 자원 적극 활용

**추진
과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 ▶ 빅데이터·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 ▶ 지역사회 중심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
- ▶ 생애주기별 위기 대상자 발굴
- ▶ 복지서비스 자격 안내

**대상별
맞춤형 지원**

- ▶ 노인 및 장애인
- ▶ 노숙인 및 쪽방주민
- ▶ 아동 및 청장년
- ▶ 국가유공자

**한파 대비
난방 · 건강 지원**

- ▶ 저소득층 난방지원
- ▶ 시설 한파 대비 철저
- ▶ 겨울철 건강관리 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 저소득층 생계지원
- ▶ 주거위기가구 지원
- ▶ 겨울철 근로공백 방지
- ▶ 금융취약계층 지원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 ▶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조성
- ▶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 추진 방향

- ①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②대상별 맞춤 지원, ③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④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⑤나눔문화 확산 중점 추진

□ 과제별 추진계획**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 (빅데이터·AI 활용) 위기 정보(47종)를 분석하여 위기가구 약 30만 명 발굴·점검*('25.11.~'26.3.), AI 활용 초기상담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
* 단전·단수 등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겨울철 중점 발굴(4만명)
- (인적 안전망 활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26.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8.1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
- (취약대상 집중점검) 가정양육 만 3세 아동의 소재·안전 전수조사('25.10.~12.), 기초연금 미수급 거주불명 노인 발굴·지원('25.9.~12.)

② 대상별 맞춤형 지원

- (노인·장애인) 한파·대설특보 시 생활지원사(3.7만 명)가 취약노인 안부확인 응급관리요원이 ICT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모니터링 실시(27.8만 가구)
- (노숙인·쪽방주민) 폭설·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 제공, 난방용품(핫팩, 침낭 등)·식사 제공 및 현장지원 강화('25.11.~'26.3.)
- (아동·청장년) 결식우려 아동 적극 발굴 및 급식 지원,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등의 돌봄 지원 확대*
* (일상돌봄) 215개 → 220개 이상 시군구, (긴급돌봄) 137개 → 142개 이상 시군구
-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유공자 생활실태 등 점검, 복지서비스 연계 및 난방용품 등 지원, 재난 피해 시 재해위로금 지급(1인 최대 1,000만 원)

③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다자녀 기초수급자 포함) 및 대신신청제 도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난방비 지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 검증 및 동의 수취 후 당사자 대신 '도시가스 요금 지원 신청'(25.7.~)

*** (경로당) 月 40만 원('25.11.~'26.3.) / (사회복지시설) 月 30~100만 원('26.1.~'26.2.)

- (예방접종) 65세 이상 등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25.9.~'26.4.)
- (건강관리) 한랭질환 발생현황 감시·공개('25.12.~'26.2., 500여개 응급실), 방문건강관리 통해 건강관리 교육·점검('25.11.~'26.2., 262개 보건소)

④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생계지원) '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51%, 4인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주거위기가구 지원) 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임시 제공(최대 6개월),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근로지원) '26년 노인(115.2만명, +5.4만)·장애인(3.58만명, +2.3천) 일자리 확대 및 조기선발(~'25.1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 확대(81.1만명, +5.5만)
※ 혹한기에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단축·유연) 및 기상특보 발효 시 활동·근무 중단 가능
-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5→2%) 및 접근성 제고 위해 취급 기관 확대(3→7개 은행)
* 연소득 3.5천만 원 이하 청년(만 19세~34세 이하)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보증부 대출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 (그냥드림) 생계 어려운 국민에게 즉시 먹거리·생필품(2만 원 상당) 지원, 2차 방문 시 상담 통해 복지 연계 및 사례 관리 실시('25.12.~)
- (나눔문화 조성)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한 집중모금(4,500억원 목표), 취약계층 영양지원과 결식 예방 지원 물품 긴급지원 준비('25.11.~'26.2.)

□ 향후 계획

- 지자체별 대책 수립('25.12.),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어려워 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나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찾고 같이 도우면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란?

-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노숙인과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도움 요청하는 방법

대표창구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 국번없이 129)

쉽고 빠른 요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위기알림
 - 복지위기 알림앱
- (QR 코드 스캔 또는 플레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유형별 상담

- 금융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채무/신용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난방 | 에너지바우처(☎1600-3190)
- 주거 | 주거복지콜센터(☎1600-1004)
- 고용/노동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돌봄 | 긴급돌봄(☎1522-0635)
(*서울/경기 제외)

붙임4**서울역 쪽방상담소 등 현장방문 개요****□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5.11.28.(금) 10:00~11:00
- (장소) 서울역 쪽방상담소(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 (참석자) 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외서울시 복지기획관, 용산구청 생활지원국장,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쪽방상담소장 등
- (주요내용)
 -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설명 및 의견 청취
 -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상황 점검
 - 현장 종사자 격려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내 용
10:00~10:05(5')	○ 도착 및 관계자 인사
10:05~10:40(35')	○ 겨울철 대책 현장 간담회
10:40~11:00(20')	○ 온기창고 라운딩 ○ 쪽방주민 방문 및 안부 확인